韓國에서의 政治學敎育

張 公 子
(忠北大 政治外交學科 助敎授)

Ⅰ. 머리말

政治學은 정치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社會科學 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정치현상은 사회현상의 下位現象이지만 이에 관한 관찰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만한 定義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우기 정치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多樣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觀察者들의 견해 또한 쉽게 일치할 수가 없다. 이런 까닭으로 정치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定義는 政治學者의 數만큼이나 많다고 한다.

그러나 現代政治學에서는 정치를 정부가 政策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및 각종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스튼(D. Easton)은 政治硏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社會에 대한 價値分配의 權威的인 政策을 體系的으로 이해하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즉 "정치학은 바로 한 社會에 있어서 價値에 대한 권위적인 分配를 연구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스튼의 정의는 오늘날 많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政治現象에는 「社會」, 「價値」, 「政策」이라는 세 개의 중요한 槪念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政治學徒들은 이러한 槪念問題들을 얼마만큼 主體的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 하였는가에 대하여 한번쯤 돌이켜 볼 必要가 있다고 본다.

물론 政治學도 다른 學問과 마찬가지로 그 固有의 學問的 전통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生成한 사회와 시대에 기여하는 문제를 경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자기 나라의 현실을 남의 나라의 현실인 양 방관하거나 다른 나라의 현실을 우리 나라의 현실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過誤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政治學徒들은, 우리 나라가 처한 狀況과 必要에 부합되는 觀念과 基準을 세우지 않고는 한국이란 사회를 경영해야 할 學問으로서의 課題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政治現象을 연구하려 할 때, 우리의 觀念과 基準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만 그 學問的인 課題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視角에서 韓國에 있어서 정치학이 안고 있는 課題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한 敎育的 方向은 어떻게 設定되어야 할 것인가를 槪述하고자 한다.

Ⅱ. 政治學의 發展과 特徵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지식 체계로서의 정치학의 출발은 해방과 더불어 종전 일본에서 통용되던 國家學이 그대로 이식되었고, 서구의 정치학 역시 美軍政 아래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自律的인 목적이나 기준의 설정이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政治學은 그 수입과정에서부터 주체적인 목적과 기준의 설정이 결여된 채 輸入學問으로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특히 歐美라는 時·空間的 산물인 정치학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학문적 전통이 너무 빈약했을 뿐 아니라, 지적 수준마저 매우 저급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정치학은 해방 후 일본에서 통행하던 國家學 중심의 정치학과 미국에서 성행하던 行爲時期의 정치학을 동시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서 정치학의 發展過程을 구분하는 것을 보면, 김운태 교수는 제 1 기—계몽기 (1945. 8. 15~1953), 제 2 기—탐색기 (1954~1961), 제 3 기—성장기 (1962~1969), 제 4 기—토착화를 위한 반성기 (1970~현재)로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 김계수 교수는 제 1 기—한국 정치학의 발족기 (1945~1953), 제 2 기—한국 정치학의 아화기 (1954~1961), 제 3 기—한국 정치학의 발현기 (1961~현재)로 구분했고, 민준기 교수는 제 1 기—계몽기 (1945~1961), 제 2 기—모색기 (1962~1969), 제 3 기—성장기 (1970~현재)로 구분한 후, "한국 정치학의 발전기는 앞으로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과학적 理論定立이 되었을 때를 發展期라 명명하고 싶다"고 함으로써 한국 정치학의 발전기를 한국 정치학의 정립과 동일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 정치학의 발달을 다루기 위해 편의상 시기 구분을 하려고 할 때, 학자들의 견해나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歐美의 정치학이 거쳐야 했던 발전단계를 우리는 압축했거나 중복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규범이나 제도, 법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하였고 價値問題를 중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歐美 여러 나라에서 정치학을 修學한 신진 정치학도들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아예 관념론이라 하여 고려의 여지를 보이지도 않은 채 구미 정치학 특히 미국 정치학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는가 하면,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학자 중에는 行態主義의 취약성을 들추어 비판하는 등 논란이 없지도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1962년 「한국 정치학회」의 회원 100명 중 10%가 日帝時代에 대학을 나온 교수, 부교수였고, 4.8%만이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수학한 사람들이었다는 비율만으로도 '60년대 이전 우리 나라의 정치학은 미국의 정치학보다는 日本類의 정치학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해방 후 일본서적을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 하겠다. 그러나 '5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美國務省의 계획으로 적지 않은 數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정치학을 연구하게 됨으로써 일본을 거쳐 들여오던 종래의 구미 정치학을 직접 들여오게 되었다.

비록 당시 歐美의 정치학이 직수입되기는 했으나 그 연구 경향은 아직도 구미의 정치제도를 역사적·법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종전의 연구 경향에다 기능적인 측면이 첨가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구미정치를 靜態的인 파악에서 動態的으로 이해하려는 미국 정치학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경향이나 업적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여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主體的으로 다루고자 하는 意識도 빈약하였다. 다만 피동적인 입장에서 외국의 學問만을 흡수하고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비록 이 기간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학은 구미의 정치학을 흡수·추종·모방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변화된 樣相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의 증대, 둘째로 당시 미국 정치학계를 풍미하던 行態主義의 여파가 한국에 파급되었다는 점과 機能主義的 접근방법이 한국 정치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방법론에 대한 반성인 동시에 구미 정치에 대한 무비판적인 모방에서 우리의 문제를 主體的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상의 변화라 하겠다. 그러나 구미의 정치학 이론이나 접근방법을 한국 정치 연구에 응용하는 가운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더불어 단점을 깨닫게 됨으로써 구미 선진국의 정치학의 방법이나 이론이 한국과 같은 開途國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타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유용하지도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정치 학도들은 한국 정치에 눈을 돌림으로써 한국 문제를 다루는 論著가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한국의 정치현상을 설명하여 보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이론을 구성하기 위하여 事實發見과 槪念規定 및 理論化의 작업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비교정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면 한국 정치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연구는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의 事例硏究나 歐美理論의 도입은 물론 한국의 근대화나 정치발전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상적으로는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고, 동태적으로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政治變動論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실상 한국의 정치발전 문제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발전에 관한 우리의 연구가 아직도 미국적인 發展槪念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발전 문제를 구미의 發展槪念에 의해 파악하려 한다면 논리적인 타당성은 성립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適合性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적 知識體系로서의 정치학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이래 그 연구의 대상이나 방법에 있어서 '60년대를 전후하여, 전기에는 주로 일본, 그리고 후기에 있어서는 미국 정치학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정치학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주체적 또는 自我準據的 정치학」의 정립 문제가 현실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간 우리 나라의 복잡한 政治現實 문제에 대하여 서구적인 관념과 기준에 따라 보려는 학자도 있었고, 보편성을 생명으로 하는 학문적 屬性을 내세우면서 토착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時·空間的 특수성을 긍정함으로써 한국 정치학의 토착화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行態主義 또는 實證主義 접근방법에 관한 한계점 내지 취약점을 인식하고 정치발전의 내용이나 개념 규정에 있어서 철학이나 역사 등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援用하려는 이론적인 모색을 하는가 하면 구미의 후기 행태주의 경향인 「적합성과 행동 (relevance and action)」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Ⅲ. 政治學의 定立과 課題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처음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구미를 위시한 선진국 정치학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硏究方法은 물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배우고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은 非西方國家 중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을 만큼의 유능한 정치학자를 가지고 있다. 1965년 정치·행정학 敎授의 수는 165명이던 것이 1974년 한국정치학회 회보에 등재된 회원수는 약 385명으로 '65년에 비해 갑절이 넘는 증가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1983년 동 회보에 등재된 회원수는 658명(특별회원 29, 정회원 616, 준회원 1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人的 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어서 정치학에 대한 社會的 評價는 과학이나 기술에 비해 下位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의 정치학이 우리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을 형성하는 데 약했거나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개선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이 지향해야

할 이상, 즉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有用한 知識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있는 것 같다.

이처럼 한국에 있어서 정치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간 유용하고도 타당성 있는 방법론의 구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치학도들은 歐美諸國의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도입·소개하는 데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政治現象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 외에도 한국 정치에 관한 자료 수집의 곤란성이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성 등 政治狀況의 제약성과 정치 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곤란성을 들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우리의 政治現實을 외면하고 한국 정치에 관한 연구를 기피하였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965년 한국 정치학자들의 전문분야별 分布狀況에 있어서 「한국 정치」가 전체의 7%로 제 7위에 머물던 것이, 1974년에 와서는 순위상으로는 변동이 없었으나 11명의 인원에서 8명으로 감소되었다는 데서도 한국 정치에 대한 기피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정치학자들이 一身의 안전이나 현실 타협에 급급함으로써 학자로서의 本領을 지키지 못했다는 질책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정치의 연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뒤지고 침체된 분야로 남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가장 앞선 분야가 미국의 정치·행정 분야로서 그 분야에서 연구 개발된 理論과 方法이 비교정치나 국제정치 분야에 적용되는가 하면 그 이론의 유용성 여부가 검증되고 있다. 그리고 기이한 사실은 미국에서 政黨論이나 입법과정은 미국의 정당연구나 입법과정을 敎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외국, 특히 미국의 것을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학 연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時·空間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개발된 방법이나 이론이 한국의 상황에 부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 자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학도들은 우리의 정치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틀과 방법을 주체적으로 개발하여 보편적 가치를 갖는 과학적 理論形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理論的 定立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우리의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이론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과 현실에 입각해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기초한 理論定立의 필요성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고, 우리들 자신의 知的·物的 자원에 의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현실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한국이라는 時·空間的 특수성 속에서 한국 정치학이 독자적인 硏究視角, 硏究素材, 연구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당면한 內·外在的인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한국 정치학은 학문으로서의 존재가치는 물론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보편성 있는 학문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學問體系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의 설명과 해결을 위해 우리 나름의 觀念과 基準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치 사실에 대한 서술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가치와 규범 그리고 선택해야 할 政策對案의 연구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의 정치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모형을 개발하여 한국 정치학의 內容構成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체계화를 이루는 데 진력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학은 정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국제적인 公認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학문적인 作業을 부단히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개발되고 수립된 방법이나 모형 및 이론을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검증하고 수정해 갈 때, 輸入學問으로 출발한 우리의 정치학은 그 구각을 벗어나서 「우리적 가치방향에

準據해서 우리적으로 인식·설정된 정치적 문제의 우리적 해결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이른바 「한국화(Koreanization)」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한국화」의 작업이 곤란하고 완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서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한 정치학자로서의 義務와 權利를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Ⅳ. 政治學의 敎育과 方向

한국의 정치학도들은 그 동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정치학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硏究方法은 물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배우고 소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활동이 한국의 정치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정치 환경 속에서 연구 개발된 理論과 方法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를 관찰하는 데 문제가 없지도 않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론이나 방법도 한 사회의 특정된 조건 속에서만 妥當性을 가질 뿐 모든 사회와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어떠한 이론과 방법도 時·空的 産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과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또한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永續性을 지니는 이론과 방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특정한 時·空的 제한을 받는 이론과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약을 받지 않는 보다 普遍性을 지닌 것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이미 시사되고 있다.

敍上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이 餘他의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치학의 敎育目標를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더욱 知的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과 동시에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교육」에 두고 있다고 할 때, 한국의 정치학 교육의 방향은 우리 나라의 역사·문화·환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그 일차적인 중점을 두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와 問題意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정치학의 고유한 領域과 傳統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정치학 교육의 內容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아카데미즘에 편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학 교육에 결여되어 있는 분야는 「哲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우기 학교에 따라서 한국 정치사상사 내지 동양정치사상사는 設講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서양정치사상사는 시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하면, 서양정치사상사는 필수로 처리되어 있으면서도 한국 사상사나 동양정치사상사는 선택으로 취급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고 政治史만 하여도 구미 정치사는 설강되어 있으면서도 동양정치사 내지 한국 정치사는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政治學敎育에 있어서 철학·정치사상 및 역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의 정치사상사 및 정치사의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未開拓狀態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적 이론 구성을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유용하고 적합한 한국 정치학이 정립되는 데 필요한 理論構成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역사적 연구는 아직도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금후 한국의 정치학이 안고 있는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關心은 물론, 교육의 내용이 우리 자신이 經驗하고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觀察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관계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한국의 政治現象과 文化體系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이론과 방법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과 방법의 현실에의 적합성 문제에

항상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 맺는 말

우리 나라의 정치학에서는 미국의 정치학보다는 일본류의 정치학이 우세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학 교수의 대부분이 日帝下에서 교육을 받은 데다가 해방 후 일본 서적을 비교적 쉽게 求得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5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정치학을 修學한 신진학자들에 의해 종래 일본을 거쳐 들어오던 정치학을 구미로부터 직수입하게 됨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단 이 시기의 정치학은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외국의 이론이나 개념을 소개하고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정치학도들은 우리의 정치문화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한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理論構成에 필요한 사실 발견과 개념 규정 및 이론화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70년대부터는 한국의 근대화와 정치발전 문제에 비중을 두고 思想的으로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였고, 動態的으로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政治變動論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의 변화인 동시에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작업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정치학에 대한 社會的 評價는 과학이나 기술에 비해 저급한 것이었다. 이는 정치학이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有用한 知識을 제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정치학도들이 구미제국의 여러 가지 接近方法을 도입, 소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한국의 정치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獨自的인 방법을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할 가치와 규범 그리고 선택해야 할 政策對案의 연구에 보다 큰 비중을 두면서도 우리의 정치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한국 정치학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한 정치학의 「韓國化」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정치학도들은 첫째, 정치학의 客觀化를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방법상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론 수립은 물론 논리적인 사유와 수량화의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둘째, 정치철학과 정치학 가치문제에 관한 연구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에 있어서 그 연구단위는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價値判斷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기야 어떤 極端論者는 가치판단은 과학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치학이 인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문인 만큼 가치문제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정치학의 敎育目標가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더욱 지적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과 동시에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교육」에 있다면, 한국의 정치학 교육은 政治學的 지식을 한국에 더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의 정치생활의 改善과 改革이 있을 만한 (desirable)정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